주간브리프
WEEKLY ISSUE BRIEF 2026. 3. 30. Vol.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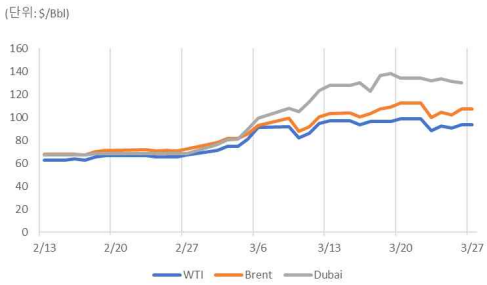
세계 경제 동향

국제 유가 급등락 반복, 변동성 지속 ▌'26-3-26 아시아개발은행(ADB); '26-3-26 연합뉴스

- '26년 3월 넷째 주 국제 유가는 미·이란 종전 협상 기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.
  - 23일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던 브렌트유의 가격이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장중 109달러를 상회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이어짐.
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은 미국-이란 분쟁 장기화 시 아시아·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최대 1.3%p 하락하고 물가는 최대 3.2%p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고함.
- 한편,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3월 27일부터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,934원, 경유 1,923원으로 고시하는 한편,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함.

❖ 미·이란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뿐 아니라 비료·사료 원료 등 농업 투입재 수급 차질로 이어져 글로벌 식량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짐.

▌'26년 2월~3월 국제 유가 추이 ▌



▌'26년 2월~3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▌



국내 경제 동향

원/달러 환율 1,500원대 지속 ▌'26-3-26 한국은행

- '26년 3월 넷째 주 원/달러 환율은 1,500원대 안팎에서 등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지속함. 3월 24일 환율은 1,495원으로, 1,500원 밑으로 내려왔으나 이후 반등하여 1,500원을 다시 돌파함.
- 한국은행은 중동 사태 이후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확산으로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금리 상방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분석함.

❖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맞물려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, 사료 곡물·비료 원료 등 농업 투입재의 수급 차질이 우려됨.

나프타 수출제한 규정 시행, 수급 안정 총력 대응 ▌'26-3-27 산업통상자원부

- 산업통상자원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「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」을 시행함. 나프타는 석유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로, 국내 수요의 45%를 수입에 의존하며 이 중 중동산 비중이 77%에 달함.
- 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 나프타 사업자의 생산·재고 등 일일 보고 의무, ② 매점매석 금지 및 판매 조정 명령권, ③ 원칙적 수출 전면 제한(예외적 승인제), ④ 특정 수요기업 우선 공급 명령권 등이며, 5개월간 시행될 예정임.

❖ 나프타는 농약·비료 등 농업용 화학제품의 핵심 원료인 만큼,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농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일본 정부 중동 정세 대응 관계장관 회의 개최 ▌'26-3-24 농림수산성

- 일본 정부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여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, 해상 안전 및 에너지·석유 제품의 안정적 공급 확보 방안 등 공급망 전반 대응 방안을 논의함.
  - 일본 총리는 전 산업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급 상황과 국내 재고를 반영한 대응 방침을 마련하도록 지시
- 농림수산성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영향이 제한적임을 설명하며 비료 및 농업자재 수급 계획을 제시함.
  - 일본은 비료의 對중동 수입 비중이 낮고 봄철 사용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, 농림수산성은 가을 이후 비료 원료의 조달· 가격과 멀칭 필름 등 석유 유래 농업자재 공급을 지속 관리하여 농산물 공급 차질을 예방할 계획

❖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, 비료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 대체를 추진하는 등 중동 상황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.

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비료 수급 차질, 중국 긴급 대응 ▌'26-3-26 글로벌이코노믹

-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비료 수출의 약 30%가 차단되면서 비료 핵심 원료인 유황·요소 수급에 비상이 걸림. 중국의 유황 수입량은 올해 1~2월 전년 대비 35% 급감하였으며, 이란산 수입은 4개월째 전무한 상태임.
- 중국 정부는 봄철 파종 시즌을 앞두고 예년보다 약 15일 일찍 국가 비축 비료를 긴급 방출하고, 요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비료 원료에 대한 수출 제한을 연장하는 등 강력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시행함.

❖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비료 원료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, 수입선 다변화 및 국가 비축 물량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.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농식품부, 중동 상황 관련 면세유 가격 동향 점검 ▌'26-3-20; '26-3-24 농림축산식품부

- '26년 3월 24일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용인시 원삼농협 주유소를 방문하여 농업 면세유 공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함. 또한,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농협주유소의 협조를 요청함.
  - 앞서 3월 20일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, 유가 동향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계획함.
  -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* 시행 이후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가 3.7%(1,159→1,123원/ℓ), 경유가 4.4%(1,366→1,308원/ℓ), 등유가 2.8%(1,309→1,286원/ℓ) 하락함.

*정유사의 주유소·대리점 공급가격 기준, 1차 적용기간(3.13~3.26)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,724원/ℓ, 자동차용 경유 1,713원/ℓ, 등유 1,320원/ℓ

- 농협은 3월 9일~4월 8일간 농협주유소 구매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 60원/ℓ, 경유 180원/ℓ, 등유 450원/ℓ를 환급할 예정임.

❖ 최고가격제는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, 공급 축소·초과수요 등이 우려되는 만큼 유류비 부담이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